**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 37장 1-14절>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이끕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고, 그 뼈들은 모두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 부식이 끝나버린 시체들, 누구의 몸 어느 부위에 붙어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리저리 흩어져 수북이 쌓여있는 뼛조각들…

죽음의 분위기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그 처참하고 절망스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작은 소망의 끈을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 명령에 순종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서로 연결됩니다.

이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로 서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하던 그곳, 출처를 알 수 없는 뼈들이 마구 섞여 흩어져 있던 그곳에, 생명력으로 충일한 강한 군대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BC 600-700년 어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국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합니다.

도시와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온 인류를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지도, 그 복을 외부에 흘려보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주변국 군대를 이용해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후 포로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한탄하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완전히 잃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주님은 마른 뼈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을 불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다시 알게 하겠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나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다고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언저리에도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감돌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오고자 해도 좀처럼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작동하던 내 몸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밤낮없이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쟁의 현실을 늘 분주히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의미와 생명이 빠져 있음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광현아, 가끔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살다보면 내가 하는 일에 치여서 돈 몇 푼 더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그러다보면 또 욕심내게 되고, 그렇게 욕심내서 뭘 하면 그 결과는 꼭 안 좋더라. 야, 삶이 왜 늘 이런 식일까? 니 생각엔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볼 때,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어 눈을 아래로 쳐박고 더이상 생명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소리에 휩쓸려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가 그 두 사도에게 얻고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날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몇 푼의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를 바라보는 태도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앉은뱅이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수그리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무언가 소리없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 이것은 이전과 같은, 될대로 되라 식의 구걸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던, 지금도 차마 입밖으로 낼 수도 없는, 그의 진짜 소망이 비로소 마음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마침내 그는 일어섭니다.

이어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정 바랬지만, 현실에서는 늘 동전 몇 푼을 바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진정 바랬지만, 현실에서는 늘 성전 문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초청을 받고 그는 그 고난과 문제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어려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아까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돈으로 인한 과도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결핍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 느낄 것이고, 늘 쉽게 절망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늘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이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딤전6:12)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고 더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은 그 고난과 문제의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간증들을 수도 없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전하자 박해자들이 그들을 잡아들여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역설의 삶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16-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래로 쳐진 고개를 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줍니다. (호2:15)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19-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처럼 그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며, 그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생명 구원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마른 뼈와 같이 생명에서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체코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곳,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하던 시절 순교자의 피를 따라 진리를 향한 외침이 강하게 울려퍼졌던 이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답을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땅의 개신교회들은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을 뿐 아니라, 적잖은 교회들이 그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비전에 사로잡힌 용사들로 다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해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역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3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친히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께 사모하며 꿈꾸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체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코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혼자서 꾸준히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이에 함께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문제에 눌려 하루하루 그저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의 한 가운데서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마른 뼈들이 생명력으로 충일한 큰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체코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하시는 역사가**

**고난과 문제의 현실 앞에서 기도하며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변혁과 갱신의 요청 위에 서있는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